

‘한국초등교장 연수회’ 5000여명 참석 성료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남초등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제61회 한국초등교장 연수회'가 지난 13~14일 목포실내체육관 등 목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초등학교 교장과 교장 출신 장학관, 교육 전문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화순초등학교와 강진중앙초의 공연을 비롯해 조정래 작가의 특강, 목포산정초, 해남서정초, 신암압해초 등 우수학교탐방이 이어졌다.

특히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연수와 함께 대규모 인원의 방문으로 지역 상권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목포시도 연수회 참가자 대부분이 초등학교 교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목포지역 근대역사문화 공간 등 교육적 가치 등을 홍보하며 향후 수확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유치에 집중하기도 했다.

김창운 전남도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17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된 이번 연수가 전국 초등교장들에게 전남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비롯해 전남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광주 장애인체육회 장흥서 바다낚시대회



전남도장애인체육회(남백원 상임부회장·오른쪽)와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전남·광주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바다낚시대회'를 정남진(장흥군)에서 개최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동구 충장동 주민센터 '사랑의 계절 반찬'



광주시 동구 충장동 주민센터에서 김치를 담가 나누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계절 반찬' 행사가 지난 14일 진행됐다.

(충장동 주민센터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강석오(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광, 전 광주일보 부국장)·박부현씨 아들 성필군, 김서은양=29일(토) 오후 3시30분 국회헌정기념관.

▲박성관·윤미숙씨 아들 정준군, 오세출·김순애씨 딸 지현양=30일(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7층 스카이뷰 웨딩홀 02-528-4098 (신부측 피로연 21일(금) 오후 5시 영광 정보리 한우프라자 061-351-8292).

동창회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제18회 동창회 졸업 50주년 홀킹데이=22일(토) 오후 3시 조대부고 시청각실 010-3608-3822.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24차 정기총회=27일(목)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3층 베누스홀 062-224-1461.

중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원례회(회장 이보희)=22일(토)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재영광 낙월면향우회(초대회장 장원서) 창립총회=22일(토) 오전 11시 영광 글로리웨딩컨벤션홀 010-3617-0721.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동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동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책방 봉사하러 갔다 ‘아름다운 인생’ 얻었죠”

아름다운 가게 용봉점 헌책방 자원봉사 10년 강혜숙 활동천사

매주 4시간씩 2400시간 넘어 봉사활동은 '생활의 일부' 60대에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주민들 사랑방 되었으면"

지난 15일 '아름다운 가게 용봉점 헌책방 10주년 행사'에서 만난 활동천사 강혜숙(62)씨는 하루 종일 분주했다. 책방을 찾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함께 나눌 음식을 챙기고, 기념식에서 시낭송을 했다. 이날 그녀가 낭송한 시는 책방의 오랜 단골인 김용운 작가가 최근 펴낸 사신시집 '자자애애'에서 선택한 '사랑'이었다.

이날 강씨는 감사패와 꽃다발도 받았다. 헌책방이 문을 연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꼬박 10년 간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데 대한 고마움을 담아 책방이 준비했다. 매주 한 차례 4시간씩 해 온 봉사활동은 2400시간을 넘어섰다. 헌책방이 1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책과 재능을 기부한 수많은 사람과 강씨 같은 '활동천사'의 도움이 컸다.

매주 한 차례 4시간씩 해 온 봉사활동은 2400시간을 넘어섰다. 헌책방이 1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책과 재능을 기부한 수많은 사람과 강씨 같은 '활동천사'의 도움이 컸다.

강씨는 지난 2009년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에 헌 옷을 기부하며 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트렁크에 옷을 담아 버스를 타고 가 기부했어요. 그 때 연락처를 남겨둔 덕분에 책방이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죠. 처음 책방에 온 날이 기억나네요.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곳이 생기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바로 활동천사 봉사활동을 한 후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강씨에게 봉사활동은 '생활'의 일부였다. 15년 전 딸아이가 경신여중에 다닐 당시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아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방문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손자와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는다. 그 후 봉사활동이 10년간 지속된 한 달에 한 번 생일파티를 하고, 적십자 반찬 배달 서비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용진육아원도 매일 한차례씩 방문한다.

꾸준한 그의 봉사활동을 곁에서 지켜본 지인 중에는 책방 활동천사로 참여하는 이들도 많다. 딸도 엄마와 함께 책방에서 활동천사로 일했다.

몇 년 전부터 투석을 하고, 지난해 신장수

술을 받은 강씨는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조언을 들었지만 “책방에 나가는 게 좋아” 몇 달 쉬지 않고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강씨는 책방을 찾는 이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고, 신의를 주기 위해 예순이 넘어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따다.

“책도 볼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이곳의 분위기가 참 좋아요. 무엇보다 책방을 통해 인연을 맺은 고객이나 재능기부하시는 분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또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요. 이 곳에 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참 편안해보여요. 좋은 마음으로 나누기 위해 오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놓으시고, 책을 기증하신 분들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방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매달 음악회(셋째주 토요일)도 열리니 참여해도 좋습니다.”

강씨는 “헌책방이 문을 연 지 10년 됐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쉽다”며 “편하게 오셔서 책을 보고, 동네 사랑방처럼 활용해도 되니 많이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책을 기부받아 판매해 수익금을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 용봉점 헌책방은 월·토요일(오전 10시30분~오후 6시) 문을 연다. 문의 062-514-8975.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소외 청소년 찾아 '사랑 나눔'

전남교육전문직협의회, 돌봄 기관 생필품·후원금 전달

전남교육전문직협의회(회장 박유진)는 최근 전남지역 동부와 서부권 청소년 돌봄 기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협의회는 동부권 '순천 SOS 어린이마을'과 서부권 환경 '시온원'을 각각 방문해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환경정화를 펼치는 등 봉사를 진행했다.

오는 7월 '실생활과 연계된 과학'을 주제로 얼굴 세정제를 직접 만들어보는 재능기부를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후 남은 물건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박유진 회장은 “봉사활동에 어김없이 참여하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향상돼 업무 효율도 높아지는 것 같다”며 “나눔실천으로 지역사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최유준 전남대 교수 '클래식 기타와 만남' 특강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최유준 전남대학교 교수가 수요레저콘서트 '클래식의 이변, 클래식 기타와의 색다른 만남' 강의를 진행한다. 1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날 강좌는 클래식 장르에서 기타의 위치, 다채로운 기타 음악 세계, 기타의 음악사적 역할과 의미에 중점을 둔다. 클래식 기타합주단 '그랑 기타 앙상블'의 김성진 단장과 정성원 음악감독, 각 파트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기타 5중주 그룹 '그랑기타퀸텟'이 함께 출연한다. 최유준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 석사, 동아대



음악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졸업, 캘리포니아 주립대 리버사이드 캠퍼스 음악과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음악비평지 '오늘의 작곡'이 오늘의 작품' 편집위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광주일보 칼럼 '월요광장' 필진으로, 클래식·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부터 삶을 풀어내는 음악 칼럼을 연재 중이다. 전석 무료(선착순 100명). 문의 062-670-794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결핵협회 전남 노인의료복지시설 결핵 검진

257곳 8397명 대상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지회장 민영돈·사진, 이하 협회)는 지난 17일 함평군 '정겨운 물안' (오양원)을 시작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전남도, 순천시·함평군보건소와 연계해 결핵검진을 진행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결핵검진은 전남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57개소 8397명을 대상으로 홍보 엑스레이 촬영과 객담검사 등을 실시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누운 상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Portable) 검진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결핵검진사업은 현장 검진차량에서 대한결핵협회중앙영상판독센터로 홍보 엑스레이 영상이 즉각 전송돼 실시간 원격 영상 판독이 가능해져 최종 확인까지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검진비용은 무료다. 민영돈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주민들에게 결핵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완치하는 것이 결핵퇴치의 핵심”이라며 주민 참여를 당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reen Cemetery (그린장례식장) featuring a table with columns for service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table lists various packages and their associated costs and services.